

##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 개발 연구

감 정 기\*

임 은 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임박해 있다. 이러한 제도화의 움직임은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대중요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의 저변에 있는 차별적 태도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차별행위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차별적 태도가 차별적 행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근거를 둔다. 이들에 따르면, 태도란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가능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이거나,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 영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상태”, 혹은 “대상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 등으로 성격이 설명된다(차배근, 1985; 임태민, 1996; 정정희, 1999).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태도는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요소뿐 아니라 행동적(behavioral) 요소까지 포함하는 상호 연관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임태민, 1996: 14)는 점도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국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1960년 이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로는 Siller(1967)가 개발한 ‘장애 태도요인 척도

---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

(DFS)', Antonak(1982)의 '장애인 태도 척도(SADP)', Yuker와 Block(1986)이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ATDP-A형, B형, O형)', Taylor와 Dear(1981)가 개발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동체 태도 척도(CAMI)' 등을 사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척도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지니는 다양한 태도들을 유형화하여 이해하게 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차별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데에서 빚어질 수 있는 본질적 및 방법론상의 문제점(정진경, 1990)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차별적 태도에 관한 척도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별적 태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편협적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 성격의 부정적 차별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장애인차별 개념과 이에 기초한 척도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차별적 태도를 식별해낼 수 없다. 특히 은폐되거나 왜곡된 태도를 측정해내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이와 같은 개념상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차별이 이중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성차별 영역의 논의(Glick & Fiske, 1996; 김양희, 2002: 31-34)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양가적(兩價的, ambivalent)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양가적 차별이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양을 띌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크게 적대적 차별(hostile disablism)과 호의적 차별(benevolent disablism)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이러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양가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연구가 아직 시도된 바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려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개념적 기초 및 선행연구

### 가.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의 구성

우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양가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갖는 이론

적 및 실천적 당위성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특정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대개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종종 그러한 부정적 태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기제가 작용함으로써 외양상 긍정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이러한 논의는 출발한다. 열등한 소수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왜곡이나 은폐의 기제, 곧 일종의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한편, 차별 개념에 대한 편협된 이해를 탈피하면서, 일면적인 개념 파악에서 오는 설명력의 빈곤 현상을 해소할 필요성도 이와 같은 양가적 개념에 착안하게 된 이유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양가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주요한 사회적 차별의 영역인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식 성차별주의(Old Fashioned Sexism, OFS)와 현대 성차별주의(Modern Sexism, MS)로 구분하는 시각이 대두하는 가운데, 신(新) 성차별주의(Neo Sexism Scale, NS), 양가적 성차별목록(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 성태도목록(Gender Attitudes Inventory, GAI) 등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검사들은 전통적인 성차별 검사로는 측정될 수 없는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하여 여성에 대한 호의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양가적 측면에서 파악함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호의적 성차별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자면, 남성의 지배와 성역할을 부드럽고 신사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며, 여성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낭만적인 관점을 수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애정의 감정을 지님을 들 수 있다. 종종 여성들이 아주 온화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지만 중요한 임무들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무능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여성은 남성의 특성을 보완해 주는 '좋은' 특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도 호의적 형태를 띠지만 차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Glick and Fiske, 1996: 491-492; 김양희·정경아, 2002: 33).

모든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듯이 차별 개념도 사회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태도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차별은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다. 또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식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별은 또한 전통적 편견의 감정적인 잔여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는 가운데 직접적·간접적 또는 의도적·비의도적 형태로 구조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차별적 태도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특정 집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항상적인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유동철, 2000: 9).

비슷한 시각에서 차별적 태도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특정 사회집단이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에 전적으로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로 보기도 한다. 편견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차별적 태도란 한 마디로 공개적 혹은 암묵리에 모종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다(Bromley and Curtice, 2003). 차별이 반드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Grothaus, 2003).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 차별에 대해 부연하건대, 전자는 의도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인 차별이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하나가 아닌 이중적 성격을 띠고 발생하고 있다. 직접차별에는 '혐오, 천시, 배제, 분리' 등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혐오란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며,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 매우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천시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집단의 권리행사에 대해 매우 인색한 것을 말한다. 배제란 일정한 영역에서 특정집단의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리란 일정한 영역 내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기준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차별은 네 가지의 기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개인적, 제도적 및 구조적 차별의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황원영, 1997; 김미정, 2001: 12).

장애인차별(disablism)은 이상과 같은 일반적 의미의 차별적 행위나 태도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구체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양가적 차별'이라는 개념의 채택을 겨냥하는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이 폭넓은 형태를 띤다는 점에 착안한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네 가지 차별 개념규정은 이 점에서 시사적이다. 첫째,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각종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업무시행기준이나 단체의 각종 행정절차 등을 달리 하는 것도 차별로 이해한다. 넷째, 명백한 차별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간접적인 형태의 차별로 파악한다.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marginalization)시키는 사회적 권력(power),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기도 한다. 또 이와 비슷하게 장애인차별을 장애인은 열등하다는 믿음과 연관시키면서,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차별적(discriminatory), 억압적(oppressive), 혹은 학대적(abusive) 행동으로 풀이하기도 한다(<http://www.timetogetequal.org.uk>). 비슷한 의미이지만 고용상황에 국한시켜서, 장애인차별이란 피용자나 취업신청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달리 처우 받거나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곧 차별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NIEHS Homepage, 2004).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의 범주를 보면, 첫째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장애인을 구별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장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도 차별로 본다. 넷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간접차별로 보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로 정의되고 있다(이석형, 2002).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개념정의들만 보더라도 차별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개념들의 윤곽이 대개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가치비하”, “구별” 그리고 “지배”의 셋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치비하란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하다고 보아 그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생학적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별이란 장애인은 심신의 특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의 주류로부터 분리, 격리 혹은 배제시키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기피 현상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배란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여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지위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차별이 각각 적대적 측면과 호의적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때, 두 하위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적대적 차별(hostile disablism)이란 통상적인 차별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과도하게 낮추어 평가하여 멸시하고, 이들을 혐오 혹은 기피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소모적이라 보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로 규정한다. 반면에 호의적 차별(benevolent disablism)이란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주류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의 필요성을 시혜적이고 온정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태도”로 규정한다. 후자를 차별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 역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우열의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이자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와 열등한 생활조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의적 차별 개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행위나 처우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을 왜곡 혹은 은폐되었거나 변질된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태도는 전통적인 차별적 태도로부터 비차별적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비차별적 태도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의 구조를 요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의 구성

영역	양가적 차별		개 념 설 명
	성 격	개 념	
가 치 비 하	적 대 적	멸 시	장애인을 비천하고 가치 없으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는 태도.
	호 의 적	동 정	장애인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구 별	적 대 적	배 제 적 분 리	장애인들을 우리사회 주류에서 배제시키려는 태도로서 장애인이 사회와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호 의 적	보 호 적 분 리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태도.
배 지	적 대 적	권 위 적 지 배	장애인들은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대신, 사회에 부담을 안기는 존재로 보는 이해 타산적 입장에서 불이익 처분(거부 혹은 관심부재)을 정당화하는 태도.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그들의 의존성과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호 의 적	온 정 적 지 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우열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능력이 없으므로 비장애인의 시혜적·온정적 배려가 제한된 범위에서는 불가피하다는 태도. 음모적 성격도 띤다.

## 나. 선행연구의 경향 및 관련척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1943년 Mussen과 Barker가 실시한 것이 최초의 객관적 연구의 시도라 알려져 있다(류수경, 1992; 이종남, 1994; 정정희, 1999; 송수영 2001). 이후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많은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해외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Goffman은 장애인이 불구자 혹은 불안정하고 부적합하며 불가능한 사람으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교육, 직업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낙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체적인 혐오감에 의한 낙인, 성격상의 결함에 대한 낙인, 다른 종족에 대한 인종적 낙인 등을 들어, 장애가 낙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Goffman, 1968: 이재서, 1999에서 재인용: 95-96). Wright(1960)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장애인을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축내는 비생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Siller(1967)와 Noonan(1970)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Vash(1981)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의 연구 중에도 안태운(1969)은 장애인들의 성격적 측면과 인권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는 속담의 분석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미천한 인간, 미움의 대상, 무능력한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태(1981)는 속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열등감으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성열(1985)은 때로는 장애인을 동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 특유의 인간존중 사상과 연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부각시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장애인복지 정책의 확대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착안과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나운환 외, 2003). 일례로 최국환(2000)은 한국 재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며, 직업특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소재로 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번안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사례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는 류수경(1992), 이청자(1994), 이종남(1994), 임태민(1996), 서동명(1999), 김종삼(2000), 김민수(2001), 송수영

(2001), 홍성윤(2002), 김정임(2003), 이용문(2003), 남광희(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척도들로는 Siller(1967)가 개발한 '장애 태도요인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s, DFS)', Antonak(1982)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Scale of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Persons : SADP)', Yuker와 Block(1986)이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 ATDP-A형, B형, O형)', 및 Taylor와 Dear(1981)가 개발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동체 태도척도(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CAMI)' 등이 있다.

Siller가 개발한 '장애 태도요인 척도(DFS)'는 류수경(1992), 이종남(1994), 임태민(1996), 서동명(1999), 송수영(2001), 김정임(2003), 이용문(2003), 남광희(2003)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7가지 태도가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①무조건적 거부(generalized rejection) ②왜곡된 동일시(distressed identification) ③추론된 정서장애(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④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⑤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virtuousness) ⑥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 ⑦접촉시 긴장(interaction strain) 등이 그것이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 없이 장애인 분리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로서, 이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동일시는 장애와 죄를 동일시하는 태도인데, 나아가서는 장애와 응답자 자신의 약점을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추론된 정서장애는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태도이며,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은 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러한 부분적 장애가 장애인의 기능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태도이다. 권위주의적 태도는 장애인의 편에 서서 장애인을 옹호하는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신은 건강한 자로서 장애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내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며, 친교의 거부는 가까운 관계, 특히 친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나 장애인과의 결혼 또는 장애아의 입양 등을 묻는 직접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접촉시 긴장은 장애인과 접촉할 때, 불안,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는 태도로 장애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이유 없이 장애인을 싫어하는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Siller가 개발한 DFS는 전체 총 43문항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



다. Yuker와 Block(1986)이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ATDP)'는 1960년에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O형이 개발된 이후, 30문항으로 구성된 A형과 B형이 각각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청자, 1994). 국내에서는 이청자(1994)와 김민수(2001) 등이 번안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를 연구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 이 척도 역시 6점 리커트 척도이다.

Antonak(1982)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 SADP)'는 최국환(2000)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낙관-인권(optimism - human rights: OH), 행동오해(behavioral misconceptions: BM), 비관-무력감(pessimism - helplessness: PH) 등 세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이 SADP는 총 24문항으로 된 리커트형 6점 척도이다.

이 밖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Taylor와 Dear(1981)가 개발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동체 태도 척도(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ness: CAMI)'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자비심(benevolence), 사회생활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지역정신보건(communitary mental health ideology) 등 네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한광수, 이영문 등이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서정자, 2002). CAMI는 각 하위요인 별로 10문항씩 전체 4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한영숙(2001)과 서정자(2002)는 CAMI의 척도를 보완하여 정신장애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별적 태도를 일차원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때, 위의 척도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규명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선행연구와 현장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양가적 차별의 개념을 구성한 후, 네 차례의 예비조사와 마지막의 본조사를 통해 척도개발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예비조

사 I 은 척도의 예비문항 추출을 위해 실시한 개방형 조사이며, 예비조사 II 는 양가적 차별의 하위개념별로 문항을 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조사이다. 예비조사 III 과 예비조사 IV 는 개념의 구성과 조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척도에 포함시킬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척도의 확정은 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개발된 척도의 유용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전술한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정의와 결부시키려는 단계적인 시도(후술하는 네 차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개발된다. 척도에 사용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요소를 고려한다. 요컨대,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은 태도의 세 구성요소, 양가적 시각, 그리고 장애인차별의 세 하위영역 등의 세 가지 차원이 결합된 다소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원집합(original item pool)은 이러한 세 차원의 결합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 가. 조사절차

척도의 개발과정은 모두 네 차례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조사의 목적, 내용, 대상, 방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예비조사 I

- (1) 목적 : 양가적 차별 태도에 대한 문항의 원집합(original item pool)구성
- (2) 내용 : 장애인 대한 일반적 느낌이나 연상되는 바, 장애인의 장단점, 응답자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폭넓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
- (3) 대상 :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및 장애인 등 200명.
- (4) 방법 : 비체계화된 자기 기입식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현들을 척도구성을 위한 문항 형식으로 전환.
- (5) 결과 : 305개의 문항 원집합을 구성함.

### 2) 예비조사 II

- (1) 목적 : 예비문항의 구성과 척도의 내용 타당화.
- (2) 내용 : 예비조사 I 에 따라 마련한 문항들을 양가적 차별의 하위영역별로

배치한 후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정하도록 함.

(3) 대상 : 장애인문제 전문가,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여성학 등의 전문가 총 11명

(4) 방법 : 양가적 차별의 개념을 설명한 후, 각각의 하위영역별 문항배정의 적합성 및 개별 문항 표현 적절성을 각각 1-5점 구간에서 표시하게 하고, 부적합한 문항의 처리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함.

(5) 결과 : 총 105문항 선정.

### 3) 예비조사Ⅲ

(1) 목적 : 척도구성을 위한 1차 문항선정 및 수정

(2) 내용 : 전문가 평정에 따라 선정된 문항에 의한 조사 및 요인분석

(3) 대상 : 대학생 305명

(4) 방법 : 리커트 형 6점 척도로 작성하여, 학년 및 전공이 다양한 교양과목 강좌 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강좌의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문항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인추출을 위한 고유치 기준은 1로 삼았다.

- ① 각 요인과 개별문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0.3 이하의 문항은 제거한다.
- ② 주성분분석을 적용하며, 직각회전의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회전한다.
- ③ 각 문항의 공통분산치(communality)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의 기준은 0.3 이상으로 한다.
- ⑤ 분석결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크리 도표, 적재량 도표 등을 확인한다.

(5) 결과 : 척도의 문항이 64개로 축소 조정됨.

### 4) 예비조사Ⅳ

(1) 목적 : 척도구성을 위한 2차 문항선택 및 수정

(2) 내용 : 예비조사Ⅲ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척도문항의 조정을 위한 요인분석

(3) 대상 : 대학생 235명

(4) 방법 : 3차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교양과목 수강 대학생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전과는 대학을 달리 선택하여 실시함. 문항선택의 절차와 기준은 예비조사Ⅲ과 동일함.

(5) 결과 : 46개의 문항으로 재조정됨.

## 5) 본조사

- (1) 목적 : 척도의 확정과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2) 내용 : 예비조사 4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문항의 확정과 척도의 요인구조 확인 및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 (3) 대상 : 2개 대학의 대학생, 공단의 기업체 근로자, 장애인복지 기관 종사자, 특수학교 교사 등 총 887명
- (4) 방법 : 연구목적에 따라 임의로 선정된 상기 4개 조사대상 영역에서 무작위 집락표집으로 조사대상 집단을 선택하여, 선택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함. 조사표에는 척도문항과 응답자 정보에 관한 문항 외에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택한 다른 문항 및 척도들이 포함됨.
- (5) 결과 : 최종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ADS)를 확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함.

## 나. 조사도구

본조사시에 사용한 조사도구에서 핵심이 되는 양가적 장애인차별 척도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고 확정된 35개 문항의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차별은 총 20개 문항이며, 이들은 「가치비하-멸시」 7개, 「구별-배제적 분리」 7개, 「지배-온정적 지배」 6개 등으로 구성된다. 호의적 차별은 총 15개 문항으로, 「가치비하-동정」 5개, 「구별-보호적 분리」 6개, 「지배-온정적 지배」 4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형 6점 척도이다.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할 척도의 하나는 Yuker와 Block(1986)이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 ATDP-B형)'이다. ATDP-B형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고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청자(1994)와 김민수(2001) 등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형 6점 척도이다.

다음으로 Siller가 1967년에 제작한 것을 국내에서 번안하여 사용되고 있는 '장애 태도요인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 DFS)'이다. DFS는 ①무조건적 거부요인, ②왜곡된 동일시, ③추론된 정서장애요인, ④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 ⑤권위주의적 태도, ⑥친교의 거부요인, ⑦접촉시 긴장요인 등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43문항의 리커트형 척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수경(1992), 이종남(1994), 임태민(1996), 서동명(1999), 송수영(2001), 김정임(2003), 이용문(2003), 남광

회(2003)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 준거척도는 응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태도 척도로서, Marlowe와 Crowne(1960)가 개발한 '사회적 요망도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와 캘리포니아 성격검사(CPI)의 하위척도인 '호감도(Good Impression; GI)' 척도의 일부를 합쳐서 금명자(1984)가 제작한 '승인욕구' 척도로서 전체 48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이 모든 문항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척도들 외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인과의 접촉양상과 빈도, 우리나라의 법률상 장애인 개념에 대한 인지도 등에 관한 문항을 두고 있다.

## 4.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척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적용하였다. 미리 설정한 개념에 따라 요인구조를 확정하는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요인의 수 및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회전은 직각회전의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실시했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를 기준으로 1 이상의 값을 보이는 요인만 선택한다. 또한, 요인 적재량은 어느 정도 이상이라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0.4이상이면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Hair, Anderson, Tatham, and Grabrowsky, 1979). 그러나 0.3 이상일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Kline, 1993; 김양희, 1999), 본 연구는 이 기준에 따른다. 문항별 공통분산치(communality)는 0.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총 35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회전한 결과 여섯 번 반복 회전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본 연구가 설정한 여섯 하위개념과 부합하는 여섯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일부 복수 요인에 비슷한 적재량을 보여 경계선에 위치한 문항에 대해서는 개념과의 의미연관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internal-consistency) 지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94이며, 「떨시」.8150, 「배제적 분리」.8145, 「권위적 지배」.7245로서, 이들을 합한 「적대적 차별」은 .8947로 나타났다. 「호의적 차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624로서, 「동정」.6943, 「보호적 분리」.7439, 「은정적 지배」.7320 등으로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하위도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2	요인5	요인6	공통분산치
적	11. 능력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75	-.012	.030	-.095	-.026	-.171	.495
	31. 숫자도 많지 않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거액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89	.210	.259	.164	-.147	-.022	.508
	20.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가로 세금부담을 하고 싶지는 않다	.517	.192	.271	.115	-.127	.012	.407
	22.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509	.113	.186	.252	-.238	.096	.436
	10. 장애인이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498	.293	-.039	.341	.054	-.162	.481
	2.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가 일일이 배려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498	.119	-.191	.196	-.250	-.160	.425
대	8. 장애인은 체면이 없다	.129	.724	-.089	.139	-.082	-.111	.587
	13. 장애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269	.717	.037	.002	-.059	-.071	.596
	18. 장애인은 성격이 과격하다	.193	.660	.282	-.025	-.031	.051	.557
	6. 장애인은 대체로 지저분하다	-.069	.568	.299	.237	.032	-.164	.501
	34. 장애인은 도덕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059	.562	.216	.203	-.097	.065	.417
	12. 장애인은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404	.551	.129	.110	-.034	-.096	.507
적	27. 장애인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231	.469	.519	.098	-.078	-.067	.563
	28. 장애인을 대하면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054	.089	.718	.107	.093	-.066	.552
	19. 장애인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다	.284	.249	.633	.186	.052	-.014	.581
	24. 장애인이 도움을 청할 때 돕게 되는 것은 측은한 생각 때문이다	.124	.178	.547	.298	.148	-.014	.457
	33. 장애인 시설이 주거지 가까이 있으면 주위에 피해를 주게 된다	.460	.236	.417	.191	-.034	-.102	.489
	21. 우리 마을에 장애인복지 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556	.218	.391	.157	-.095	-.085	.545
호	17.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460	.335	.331	.221	-.011	-.018	.482
	16. 장애인들과 같은 운동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인들이 불편해진다	.331	.258	.360	.316	-.055	.051	.411
	9.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면 장애학생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	.042	.112	.209	.661	-.007	.051	.498
	32. 나와 가까운 장애아동에게는 일반학교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권하고 싶다	.067	.093	.217	.633	.052	.089	.473
	3.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일하게 하는 편이 본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170	.139	-.042	.630	.064	.007	.451
	23. 장애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	.186	-.016	.356	.569	.086	.036	.494
의	4. 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 정상아동이 여로 모른 손해를 본다	.243	.236	.220	.493	.092	-.121	.430
	29. 비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면 장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112	-.067	.522	.432	.036	.050	.475
	25. 장애인의 성공담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진다	-.050	-.060	.008	.008	.707	.233	.560
	1. TV에서 장애인이 어렵게 사는 사연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14	-.094	-.080	-.061	.645	.101	.458
	35. 장애인이 혼자서 힘든 일을 해 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030	-.023	.149	.221	.639	.069	.486
	5.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032	.090	.267	.267	.585	.005	.494
적	30. 길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외면하고 지나치면 마음이 찡찡하다	-.149	-.034	.012	-.031	.567	.214	.392
	15.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090	-.097	-.058	.066	.193	.817	.727
	14. 건강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066	.011	-.005	.065	.218	.810	.712
	7.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는데 장애인이 내 뒤에 있다면 순서를 양보할 수 있다	-.088	-.125	-.008	.0007	.304	.525	.391
	26.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이다	-.249	-.085	-.115	-.032	.473	.407	.474
	고유치(Eigen value)	3.382	3.361	3.165	2.874	2.640	2.090	
설명변량 %	9.663	9.602	9.042	8.212	7.542	5.972		
누적설명변량 %	9.663	19.265	28.307	36.519	44.060	50.032		

## 나. 척도의 타당도

타당도의 종류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Anastasi는 1954년 글에서 타당도를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요인타당도, 경험타당도로 구분하였으며, AERA, APA, & NCME(1986)은 크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의 세 종류로 분류한다. 그런가 하면, Anastasi는 다시 1999년 이후 타당도의 개념을 '내용타당도-내용에 기초한 근거', '반응과정에 기초한 근거', '구인타당도(요인분석)-내적구조에 기초한 구조', '수렴, 변별 및 준거타당도-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 '결과에 기초한 근거, 즉 검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성태제, 2002: 39-42).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면서, 본 연구는 개발하는 척도의 성격과 관련척도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타당도 분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항의 양호도와 관련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반응비율과 평균, 표준편차, 문항-척도 상관관계, 문항 제거시 신뢰도 등의 분석이 포함된다.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으면서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이는 그 문항에 대한 반응에 분산이 작다는 의미이므로 바람직한 문항이라 볼 수 없다(탁진국, 1996).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ADS)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6점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척도 상관관계, 문항 제거시 신뢰도 등을 검토한 결과, 총 35개 문항 중에서 반응치의 편포가 심하거나 척도와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다. 문항 선정과정에서 평균이 2.0이하 또는 5.0이상인 문항과 표준편차가 0.5미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항은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결과이다. 또한, 문항-척도상관은 대개의 경우 .3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김양희, 2000: 71), 각각의 하위척도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덧붙여 각 하위 척도와 전체척도의 상관관계의 계수를 산출해본 결과 .606~.885 사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대적 차별의 하위척도들의 상관계수는 .812~.885로서 매우 높았으며, 호의적 차별의 하위척도들은 .606~.745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로서의 차별적 태도는 의미상 적대적 차별과 더 근접해 있음을 말해준다.

<표 3> 척도문항의 양호도 분석결과

구분	하위척도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척도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구분	하위척도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척도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적대적 차별	덜시	6	2.80	1.10	.5056	.7934	호의적 차별	동정	1	5.23	0.80	.4271	.6497	
		8	2.02	1.01	.5390	.7870			5	4.39	1.12	.4122	.6555	
		12	1.70	0.98	.5620	.7836			25	5.05	0.97	.5232	.6050	
		13	1.96	1.07	.5929	.7774			30	4.72	1.04	.3968	.6592	
		18	2.14	1.09	.5883	.7781			35	4.56	1.07	.4805	.6216	
		27	2.18	1.08	.5534	.7844			보호적 분리	3	3.31	1.35	.4188	.7243
		34	2.39	1.14	.4944	.7955				4	2.56	1.24	.4498	.7148
	배제적 분리	16	2.76	1.32	.5070	.7945		9		3.35	1.35	.4988	.7012	
		17	2.15	1.22	.5727	.7823		23		3.62	1.24	.5294	.6935	
		19	2.75	1.26	.6365	.7705		29		3.33	1.27	.4897	.7040	
		21	2.11	1.16	.6125	.7761		32		3.66	1.37	.4970	.7018	
		24	3.30	1.31	.5038	.7951		온정적 지배		7	5.02	1.00	.4294	.7254
		28	3.33	1.27	.4447	.8048			14	5.29	1.06	.6037	.6219	
		33	2.22	1.07	.5821	.7825			15	5.11	1.06	.6178	.6128	
	권위적 지배	2	2.20	1.22	.4122	.6975			26	5.19	0.93	.4496	.7111	
		10	1.99	1.18	.4395	.6894								
		11	2.65	1.24	.4000	.7013								
		20	2.72	1.32	.4757	.6788								
		22	2.59	1.22	.4783	.6778								
			31	2.26	1.12	.5384		.6622						

다음으로,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념구성 타당도로서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는 유사한 구성개념에 대해 방법을 달리하여 측정한 다른 척도와는 상관관계가 높고, 같은 방법이지만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한 척도와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소수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차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적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Siller(1967)의 '장애 태도요인 척도(DFS)' 및 Yuker와 Block(1986)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ATDP-B형)'의 두 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DFS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88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별로는 「접촉시 긴장」 .5997, 「무조건적인 거부」 .7386, 「왜곡된 동일시」 .6595, 「추론된 정서장애」 .7333,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6874, 「권위주의적 태도」 .4333, 「친교의 거부」 .5178로서 다소간 편차가 있었다. ATDP-B형의 Cronbach's  $\alpha$ 는 .6912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4> 양가적 장애인차별 척도와 다른 척도의 상관관계

구분	ADS subscales								DFS	DFS subscales							ATDT -B
	HD	BD	A1	A2	B1	B2	C1	C2		접촉	무조건	왜곡	추론	손상	권위	친교	
A D S	HD	1.000															
	BD	.254**	1.000														
	A1	.864**	.164**	1.000													
	A2	-.064*	.745**	-.073*	1.000												
	B1	.878**	.376**	.634**	.077*	1.000											
	B2	.594**	.732**	.444**	.213**	.630**	1.000										
	C1	.800**	.085*	.537**	-.201**	.578**	.440**	1.000									
	C2	-.260**	.606**	-.237**	.526**	-.150**	.023**	-.301*	1.000								
DFS	.663**	.400**	.549**	.147**	.679**	.578**	.452**	-.072*	1.000								
D F S	접촉	.602**	.321**	.500**	.126**	.625**	.472**	.402**	-.081*	.816**	1.000						
	무조건	.620**	.413**	.481**	.157**	.650**	.585**	.444**	-.061	.883**	.701**	1.000					
	왜곡	.267**	.226**	.192**	.176**	.301**	.246**	.185**	-.006	.588**	.417**	.445**	1.000				
	추론	.521**	.313**	.501**	.099**	.467**	.445**	.337**	-.029	.773**	.561**	.599**	.326**	1.000			
	손상	.575**	.379**	.478**	.142**	.576**	.522**	.405**	-.031	.842**	.663**	.706**	.389**	.617**	1.000		
	권위	.213**	.034	.195**	-.074*	.239**	.202**	.106**	-.166**	.407**	.203**	.301**	.134**	.176**	.283**	1.000	
	친교	.550**	.300**	.422**	.079*	.592**	.446**	.388**	-.039	.793**	.595**	.697**	.333**	.546**	.621**	-.274**	1.000
ATDP-B	.482**	.388**	.465**	.184**	.465**	.486**	.273**	.012	.647**	.484**	.554**	.292**	.613**	.580**	-.290**	.470**	1.000

\*  $p < .05$  \*\*  $p < .001$

주(註) : ADS = Ambivalent Disablism Scale

HD = Hostile Disablism,

BD = Benevolent Disablism

DFS = Disability Factor Scale

ATDP-B = 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B type

A1 = 멸시 A2 = 동정 B1 = 배제적 분리 B2 = 보호적 분리 C1 = 권위적 지배 C2 = 온정적 지배

ADS의 하위척도별 상관관계를 보면, 적대적 및 호의적 차별이 어느 정도 변별이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HD와 BD가 .254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양자 사이에 매우 미묘한 의미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D는 그 하위척도인 A1, B1, C1과 모두 .800~.878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호의적 차별의 A2, C2와는 -.064~-0.260의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BD는 그 하위척도인 A2, B2, C2와 .606~.745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A1과는 .164, B1과는 .376의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차별을 구성하는 적대적 차별과 호의적 차별이 상호간에 변별성을 보이면서도 '차별'로서의 공유영역을 명백히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의적 차별이 지니는 양면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척도 ADS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것의 변별 및 수렴 타당도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비교하는 두 개의 다른 태도척도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ADS는 이들과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되는 '적당한(moderate)' 수준의 상관관계를 유지할 때 그 개념구성상의 타당성, 곧 유사 척도와 수렴적이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보이는 양면적 성격이 적절히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적대적 차별 및 그

하위척도는 전반적으로 두 비교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때 이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입증되고, 호의적 차별 및 그 하위척도는 두 비교척도와 낮거나 부적인 상관을 보일 때 이 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HD는 DFS 및 ATDP-B와 .482 및 .663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며, BD는 양자와 .400 및 .388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DFS와 ATDP-B 사이에는 .647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DFS는 그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척도로서 다양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그 하위척도 각각과 ADS 하위척도 각각의 상관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수렴 및 변별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ADS와 DFS의 하위척도별 상관계수들의 전반적 경향을 일별하건대, ADS의 적대적 차별의 하위척도들은 전반적으로 DFS의 유사 하위척도들과 수렴적이며, 호의적 차별의 하위척도들은 변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AD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는 수용될 만하다고 판단된다.

DFS와의 관계를 보아도 AD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된다. DFS는 적대적 차별의 하위척도인 A1, B1, C1와 .452~.679의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호의적 차별의 하위척도인 A2, B2, C2와는 .147~.578의 비교적 약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DFS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차별은 DFS와 수렴적 측면을, 호의적 차별은 DFS와 변별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척도가 일정한 기준과 경험적 관련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기준관련 타당도에 속하는(김용석, 2004: 41) 것 가운데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시타당도는 현재의 시점에서 척도에 의한 측정의 결과가 다른 유사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는 정도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의 접촉차이,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참여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동시타당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서비스 참여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는 장애인 서비스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더 크게 가짐을 보여준다. 몇 가지 국내연구의 예만 들자면, 재활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남녀 직원들 모두 일반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최국환(2000)의 연구,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나 통합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종남(1994), 임태민(1996), 서동명(1999), 송수영(2001), 김정임(2003)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전문가나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들과 나머지 일반인 집단 사이에는 차별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응답자 집단을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적대적 및 호의적 차별 영역과 이들 각각의 하위 영역들 가운데 '떨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집단간 양가적 차별 태도의 차이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 확 의 률	집 단 구 분	N	평 균 <sup>1)</sup>	표 편 차	표 준 오 차		
적 대 적	별시	집단-간	1.904	4	.476	.880	.475	대학생	302	2.1980	.6880	.0395	
		집단-내	477.226	882	.541			기업체근로자	366	2.1453	.7566	.0395	
		합 계	479.131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2.1170	.7854	.0671	
	배 제 적 분 리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2.2452	.7184	.0858	
								기타	12	2.4048	.7555	.2181	
								합 계	887	2.1703	.7354	.0246	
			집단-간	84.970	4	21.243	34.215	.000	대학생	302	2.9619 <sup>b</sup>	.7276	.0418
			집단-내	547.602	882	.621			기업체근로자	366	2.7024 <sup>b</sup>	.8615	.0450
			합 계	632.573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2.1811 <sup>a</sup>	.7594	.0648
	권 위 적 지 배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2.0592 <sup>a</sup>	.6933	.0828	
								기타	12	2.7476 <sup>b</sup>	.7238	.2089	
								합 계	887	2.6601	.8450	.0283	
집단-간			20.788	4	5.197	8.649	.000	대학생	302	2.5497 <sup>b c</sup>	.7453	.0428	
집단-내			529.971	882	.601			기업체근로자	366	2.4117 <sup>b c</sup>	.8267	.0432	
합 계			550.759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2.2129 <sup>a</sup>	.7250	.0619	
전 체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2.0448 <sup>a</sup>	.7036	.0840		
							기타	12	2.5694 <sup>c</sup>	.8362	.2414		
							합 계	887	2.4011	.7884	.0264		
		집단-간	22.065	4	5.516	12.851	.000	대학생	302	2.5708 <sup>c</sup>	.6091	.0350	
		집단-내	378.599	882	.429			기업체근로자	366	2.4204 <sup>b c</sup>	.7038	.0367	
		합 계	400.664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2.1684 <sup>a b</sup>	.6380	.0545	
동 정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2.1199 <sup>a</sup>	.6154	.0735		
							기타	12	2.5759 <sup>c</sup>	.6502	.1877		
							합 계	887	2.4111	.6725	.0225		
		집단-간	29.763	4	7.441	17.552	.000	대학생	302	4.7874 <sup>b c</sup>	.6668	.0383	
		집단-내	373.902	882	.424			기업체근로자	366	4.9571 <sup>c</sup>	.5976	.0312	
		합 계	403.666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4.5369 <sup>a b</sup>	.7002	.0598	
보 호 적 분 리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4.3979 <sup>a</sup>	.7608	.0909		
							기타	12	4.8000 <sup>b c</sup>	.5326	.1537		
							합 계	887	4.7882	.6750	.0226		
		집단-간	66.026	4	16.507	24.268	.000	대학생	302	3.4423 <sup>b</sup>	.7257	.0417	
		집단-내	599.916	882	.680			기업체근로자	366	3.4519 <sup>b</sup>	.9086	.0474	
		합 계	665.942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2.8392 <sup>a</sup>	.7974	.0681	
은 정 적 지 배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2.7567 <sup>a</sup>	.8262	.0987		
							기타	12	3.6778 <sup>b</sup>	.7690	.2220		
							합 계	887	3.3022	.8670	.0291		
		집단-간	27.631	4	6.908	12.408	.000	대학생	302	5.0748 <sup>b c</sup>	.7372	.0424	
		집단-내	491.015	882	.557			기업체근로자	366	5.3855 <sup>c</sup>	.6619	.0346	
		합 계	518.646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5.0839 <sup>b c</sup>	.8310	.0709	
전 체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4.8607 <sup>a</sup>	1.0069	.1203		
							기타	12	5.3958 <sup>c</sup>	.5786	.1670		
							합 계	887	5.1918	.7651	.0256		
		집단-간	36.280	4	9.070	35.259	.000	대학생	302	4.3254 <sup>b</sup>	.4825	.0277	
		집단-내	226.889	882	.257			기업체근로자	366	4.4692 <sup>b</sup>	.4942	.0258	
		합 계	263.170	886				사회복지기관(장애)종사자	137	4.0051 <sup>a</sup>	.5039	.0430	
체	합 계						특수학교 교사	70	3.8666 <sup>a</sup>	.6586	.0787		
							기타	12	4.5135 <sup>b</sup>	.5390	.1556		
							합 계	887	4.3016	.5450	.0183		

주(註) : 1) 집단별 평균치에 표기된 a, b, c 등은 사후분석 결과 동일 집단군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임.

우선,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적대적 차별 영역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호의적 차별의 평균값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적대적 차별태도가 호의적 차별태도에 비해 강도가 약함을 의미한다. 특히, 6점 척도에서 3점 이하는 진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 차별을 수긍하기보다 부인하는 쪽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호의적 차별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의 경향을 보인다.

집단간의 차이를 하위영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적대적 차별의 영역에서는 '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와 특수학교 교사가 낮고 학생과 기업체 근로자 및 기타 집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호의적 차별의 영역에서는 '온정적 지배'에서 교사 집단이 낮게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수학교 교사와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가 낮고 나머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적대적인 차별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적대적 차별과 호의적 차별 모두에서 특정 집단이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나머지 집단이 역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영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집단별 비교에서는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두 영역이 공유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 공유영역이 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집단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덜 차별적임을 이 분석결과가 잘 보여줌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유사한 분석과 일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척도의 동시타당도가 수용될만함을 말해준다.

## 5. 결론 :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가적 장애인차별 척도(ADS)'의 특징은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태도가 지니는 양면적 성격을 측정하려는 도구라는 데에 있다. 척도 전체가 차별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인 한편, 부정적인 태도가 호의적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란 점에서 다른 척도들과 구분된다.

본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양가적 장애인차별' 개념 설정을 위한 준거로 삼을 선행연구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태도를 다룬 평이한 수준의 연구들은 많지만 차별적 태도를 측정할 척도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된 새 척도는 관련분야의

연구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본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의 한계에 착안하여, 은폐되거나 왜곡된 태도를 식별해낼 수 있는 양가적 차별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필요로 하는 우리 현실은 사회 내의 장애인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재함을 말해준다. 제도는 차별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면, 연구는 그러한 차별적 행위의 기제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속성으로 인해, 제도적 규제가 아닌 방법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데에 연구의 결과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척도는 실제하는 차별적 태도의 내용이나 성격을 측정해낼 수 있는 척도이지 차별의 동기나 원인을 밝히려는 척도가 아니란 점에서, 이것을 활용하여 “어떻게 차별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본다. 이보다는 극복되어야 할 차별적 태도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개념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에 답하는 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금명자. 1984. "내담자 승인욕구와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 200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동료집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용석. 2004. "부모의 음주문제를 선별하는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어판 Shor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for Fathers and Mothers의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56(3): 37-59.
- 김정임. 2003.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삼. 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진주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석사학위논문.
- 나운환·박경순·전미리. 2003.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2): 355-377.
- 남광희. 2003. "비장애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류수경. 1992. "장애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동명. 1999. "발달장애 청소년과의 통합 활동 경험을 통한 일반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정자. 2002.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척도 개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학지사.
- 송수영. 2001.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태윤. 1969. "한국인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2.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 이규태. 1981. "현대사회와 장애인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p. 176-182.

- 이석형. 2002. "차별금지에서 인권보장으로". 『보이스(VOICE)』 6: 16-21.
- 이용문. 2003. "장애인 근로자와의 접촉이 동료집단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사업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재서. 1999.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이론적 이해". 『총신대 논총』 17: 79-102.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주훈·이충순·황태연·한광수·이영문. 1996. "수서 일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3(2): 188-202.
- 이청자. 1994.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재활재단. 『재활재단논문집』 3: 19-50.
- 임태민. 1996. "농촌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 1999. "청소년의 시설방문 경험이 정신 지체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pp. 82-92.
- 차배근. 1985. 『태도변용이론』. 나남출판사.
- 최국환. 2000. "한국 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0(2): 80-91.
- 탁진국. 1996. 『심리검사』. 학지사.
- 한영숙. 2001.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성윤. 2002.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AERA, APA, & NCME. 1986.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N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 이순목·이봉건 공역. 1995. 『설문, 시험, 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학지사.
- Antonak, R. F.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3: 22-29.
- Bromley, Catherine and John Curtice. 2003. "Attitudes to Discrimination in Scotland".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2003.
- Glick, P., & S. T. Fiske.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_\_\_\_\_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Goffman, E. 1968.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Middlesex, England: Pelican. pp. 14-19.
- Grothaus, Maria 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Does a Mindset Perpetuate Behavior?" Department of Psychology, Missouri Western State College.
- Hair, J. F. Jr., R. E. Anderson, R. M. Tatham, and B. J. Grablovsky. 1979. *Multivariate Data Analysis*. Oklahoma. Petroleum Publishing Company.
- Kline, D. 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Marlowe, D. and D. P. Crowne. 1961.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to perceived situational demand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109-115.
- NIEHS. 2003. <http://www.niehs.nih.gov/oeo/disc-def.htm>(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Noonan, J. R. Barry and H. C. Davis. 1970. "Personality Determinants in Attitudes towards the Visibly Disabled". *Journal of Personality*. 38(1): 1-14.
- Siller, J. 1967. "Attitudes of the Nondisabled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In J. Siller, A. Chipman, L. Ferguson and D. H. Vann. *Studies in Reaction to Disability*.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 \_\_\_\_\_ 1976. *Psychosocial Aspects of Physical Disability*. In J. Meislin(Ed.). *Rehabilitation Medicine and Psychiatr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p. 455-484.
- Taylor, S. M. and M. J. Dear.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7(2): 225-240.
- Vash, C. 1981.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 Yuker, H. E. 1988.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Progress and Prospects*. New York: Springer.
- Yuker, H. E. and J. R. Block. 1986. *Research with The 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s Scales(ATDP). New York: Hofstra University.  
<http://www.timetogetequal.org.uk>